

새로운 IT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 ‘뉴 IT전략’

남궁민
지식경제부

요약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와 함께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고갈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경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IT산업정책은 이제 IT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과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 IT전략’은 이러한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마련한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조선업과 IT가 융합하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고, 친환경·고령화 등 경제사회 문제해결에 IT산업이 기여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기술간·산업간 융합을 통해 IT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뉴 IT전략’ 추진을 통해,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산업 선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 현 IT산업의 한계와 세계 환경의 변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IT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1960~80년대가 전자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 시기라면, 1980~90년대 중반까지는 DRAM과 같은 보다 고도화된 전자제품을 출시하고 TDX 교환기 개발로 통신의 자립화를 준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는 세계최초로

CDMA의 세계최초 상용화 성공 이후 초고속인터넷 확산과 닷컴 붐이 이어지면서 무선통신과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T산업의 선도국가임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첨단제품 개발과 제조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표 1〉 주요 IT제조업의 세계 수준

| | | |
|-------|----|-----------------------------------|
| 디스플레이 | 1위 | '07년 세계시장 38.4% 점유 |
| 휴대폰 | 2위 | '07년 휴대폰시장 세계 2위(삼성), 5위(LG) |
| 반도체 | 3위 | '07년 세계시장 11.3% 점유, 메모리 1위(42.2%) |

경제성장 기여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IT산업은 1997년~2007년 평균 GDP성장률 4.4%중 1.7%를 기여하였으며, IT 부문 무역수지 누적액도 3,297억불의 흑자를 넘으로써 외환 위기 극복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IT산업이 우리나라 전반에 몰고 온 주요 변화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인구의 93.2%(4,349만명)가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가구당 보급률이 전체 가구의 95%를 초과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구축하여 IT제조업과 방송통신서비스가 선순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성공과 IT서비스 및 SW산업의 수요를 촉발하여 SW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IT산업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수출이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부품·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구조적 성장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과 수출주력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일부 품목과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전체 IT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수는 98.6%를 차지하는 반면 수출비중은 13.2%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내 SW산업은 글로벌 기업과 겨룰 수 있는 선도기업이 없고 국내시장 규모 또한 세계시장 대비 2% 수준으로 낮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잘 갖추어진 IT인프라에 비해 IT활용도가 69개국 중 15위('08, EIU)를 차지할 정도로 IT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IT산업은 다양한 지형 변화를 보여 왔고 지금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이다. 2001년 IT버블이 붕괴되었으나 IT산업은 반도체, 통신, SW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세계 IT기업 3,351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1997년 1.4조불에서 2006년 2.8조불로 급등하였다.

그러나 2001년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IT산업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중국, 대만, 인도 등 신흥국가도 크게 부상하면서 글로벌 분업구조로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관점에서의 기업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핵심기술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기술경쟁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II. IT산업 변화 : 수요 · 공급 · 정책측면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에너지 고갈과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은 IT산업의 새로운 역할모색과 수요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회 문제와 맞물려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자 IT산업 자체의 구조전환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분야에 대한 IT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IT기업인 GE, IBM, Google 등은 이미 에너지 분야에 신규 진출하였고, 저전력 IT제품의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IT와 의료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재택근무의 개념이 확산되며 새로운 융합 IT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홈네트워크라든가 u-Healthcare, Telematics 등 개인 생활 및 타 산업분야로의 IT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IT산업의 수요는 IT산업 내부에서 외부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전산업의 이슈로 변하고 있는 것이 추세라 할 수 있다.

IT산업 공급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지 생산·부품조달 등 글로벌 IT분업체계의 확산과 Chindia 등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빠른 기술변화와 기술간융합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종산업 또는 이종산업과의 협력이 중시되면서 기업간 제휴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IT산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협력기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IT산업구조를 글로벌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춰 기업간 협력도 과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IT산업 정책은 "Cyber Korea 21", "IT839" 등 지속적인 IT산업의 발전비전을 제시하면서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IT강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IT산업 정책은 세계 최고라는 IT성공은 가져왔으나, 융합화에 대한 대응, 시장수요 반영미흡, 부처간 갈등을 낳는 한계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IT와 산업간 융합,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효과적인 규제들을 마련하기 위해 IT관련 부처를 통합·개편하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IT산업은 이제 IT 자체뿐만 아니라 전산업과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IT의 수요, 공급, 국가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볼 때 이제부터는 IT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소명을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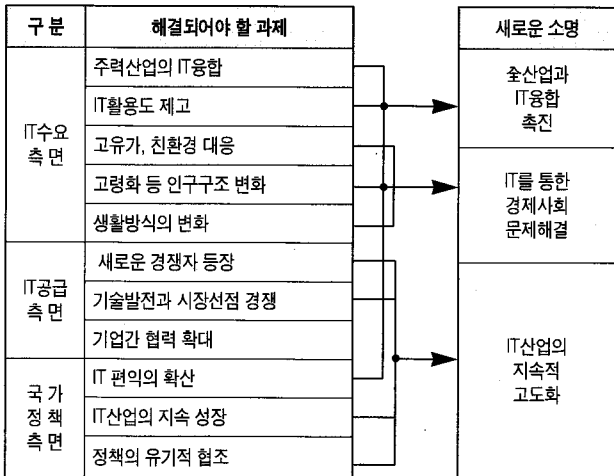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현 시대상황과 정책 환경변

〈표 2〉 IT산업 정책 변화

| 구분 | 정보화 고도화 | | | | IT산업 육성 | |
|-------|--|----------------|--------------------|---------|--|----------|
| | Cyber Korea 21 | e-Korea Vision | Broadband IT Korea | u-Korea | IT 839 | u-IT 839 |
| 기간 | '99-'02 | '02-'06 | '03-'07 | '06- | '04-'06 | '06- |
| 특징 | 정보화와 IT산업 육성 병행 · 자본투자 중심, 정부 주도 | | | | · 서비스-인프라-기기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IT산업 정책 | |
| 정책 성과 | ·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구축 · 정보기술 이용 촉진 ·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회 구현 | | | | · (기술개발) 첨단기술 확보 및 세계화 · 국제 표준 채택 : T-DMB 유럽표준('05.7), WiBro ITU 3G 표준채택('07.10) · (서비스) DMB, WiBro 등 신규 서비스 | |
| 한계 | · 정보화 편익이 타 분야로 확산 미흡 · IT활용이 오락, 게임 등에 많이 활용 · 빈번한 계획변경으로 정책 일관성 약화 | | | | · IT와 주력산업과의 융합화 대응 한계 · 공급(기술개발) 위주, 시장수요 반영 미흡 · 부처간 갈등으로 정책 낭비 초래 | |

화를 반영하여 2008년 7월 '뉴 IT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IT산업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

〈표 3〉 IT산업의 새로운 소명



III. 뉴 IT전략

「IT의 확산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뉴 IT전략은 최근 급변하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다.

뉴 IT전략은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초산업과 IT가 융합하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고유가·고령화

등 경제사회문제 해결에 IT가 앞장서겠다는 전략이다. 유럽의 i2020 전략, 일본의 ICT성장력 강화 플랜 등 선진국의 IT정책 방향도 IT인프라 구축에서 활용 제고, IT융합의 확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뉴 IT전략은 전세계적인 IT정책의 큰 흐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각 전략별로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뉴IT산업 3대 전략 분야

| | |
|--|--|
| ① 초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 (Convergence I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IT융합 ○ 프로세스의 IT융합 ○ 서비스에 IT접목 ○ 임베디드SW |
| ②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산업 (Problem Solver I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IT(친환경·에너지) ○ LED산업 ○ Health·Bio+IT ○ Life+IT |
| ③ 고도화되는 IT산업 (Advancing I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디스플레이 ○ 네트워크·무선통신 ○ IT부품과 SW산업 |

1. 전 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Convergence IT)

점차적으로 IT가 발전하면서 타산업과의 융합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융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류가 부족하고 기업의 IT활용 계획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IT를 전산업에 융합·활용하여 "IT융합선도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국내생산 1조원 이상의 IT융합산업 10개 창출, 제조업 성장률에 2% 기여, 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IT역할 확대와 융합SW의 수출 상품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주력산업과 IT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IT산업과 주력산업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자동차, 조선, 기계, 섬유,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산업IT 융합포럼」을 조직하여 IT산업과 非IT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IT융합 기술개발을 현재 5개 분야에서 2012년까지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IT융합 상시화를 위한 「산업IT 융합센터」를 2012년까지 10개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 현대기아차와 공동으로 '차량 IT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조선, 섬유,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전산업에 IT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통산업에서의 RFID/USN 확산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생산기

반기술 및 협업 등에 IT를 접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금형작업 등 중소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생산기반산업에 IT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접목한 사례는 제조업의 IT 활용 분야에 대해 성공한 좋은 사례이다. 또한 기업에 ERP, SCM, CRM 등의 시스템을 ASP/SaaS 방식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IT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IT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IT활용효과가 큰 전략업종(교육, 도소매 등)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서비스산업의 IT 확산을 위한 '서비스산업 IT화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넷째, SW를 산업간 융합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SW의 전산업에 접목하기 위해 자동차, 항공기용 운영체제 등 10개 임베디드 SW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신성장동력 및 에너지 절감 등에 공개SW 개발 결과를 적용할 방침이다.

2.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산업(Problem Solver IT)

에너지 고갈, 고령화 등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은 아직 산업화 초기단계로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T산업을 에너지 고효율 및 친환경 선도업종으로 육성하고, IT융합 의료기기산업의 수출 산업화(세계5위),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u-Life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환경 분야의 문제에 대응하여 가전·정보통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2012년까지 2007년 대비 20%이상 제고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제고 기술개발에 5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RFID/USN 등 IT 신기술을 에너지 및 주력산업에 접목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삼성전자, LG전자의 친환경 인증기준을 단일화하고 공동인증체제를 구축하여 공급업체인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연간 원유 1.6조원 절감 및 CO2, 수은 등 국제환경규

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LED조명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우체국 등 공공건물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LED 공동편드·를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창출하고자 한다.

둘째, 고령화문제 관련하여 원거리를 통원하기 힘든 노인 환자들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u-병원을 구축하고 독거노인의 건강을 원격 관리하는 u-Care 기술 등 u-Healthcare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X-ray Detector 등 IT-BT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5년간 약 2,500억원규모를 투자하여 IT를 접목한 의료기기 산업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IT를 적극 활용하여 먹거리와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u-먹거리, u-의약품 기술과 인터넷 해킹, 정보유출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정보보안산업, 주거생활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건설과 IT를 융합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IPTV 서비스, 시각장애인 보조장치 등 u-life산업의 시장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고도화되는 IT산업(Advancing IT)

그 동안 IT산업이 서비스·단말·부품·SW 등으로 연결되는 IT산업 가치사슬의 유기적인 연계 미흡, IT중소기업의 경쟁력 취약, 네트워크 장비의 높은 수입의존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기초체력이 강한 IT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이에 2012년까지 IT산업 수출 2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IT 수출 품목(수출 10억달러 이상)을 현재 13개에서 20개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 500억원 이상의 IT기업을 1,000개 육성하고, 글로벌 SW기업도 10개를 육성하여 기초체력이 튼튼한 IT산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IT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산업에서는 그간 메모리반도체의 성공을 시스템반도체로 확대하고, 장비와 재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따라서 시스템업체(자동차, 휴대폰 등)와 반도체업체간 협력관계 구축을 돕고 팹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유망한 시스템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산업에서는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OLED, Flexible Display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R&D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폰산업에서는 4대 전략부품을 선정하여 국산부품 채용률을 2007년 69%에서 2012년 80%로 향상시키고, 4세대 이동통신에서 국제표준특허의 10%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산학연 공동 '전문 표준화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장비, 부품, SW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산업은 글로벌 통신장비 협력체를 결성하여 국내외 기업 간 유기적 협력 하에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한·중·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공동연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IT부품산업은 2차전지, 센서 등 유망한 품목들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미래 핵심 인프라가 될 RFID/USN 부품의 실용·원천기술 및 국제표준특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W산업에서는 SW의 해외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수출이 유망한 SW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자정부, 전자무역 등 정보화의 성과물인 SW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W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하도급제도 개선, 분리발주 활성화 등과 같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2009년부터는 고등학교 IT교육을 응용SW사용법 교육 위주에서 원리·문제해결 방법과 절차 중심으로 개편을 지원하는 등 SW고급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IV. 주체별 역할

뉴 IT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고유의 핵심역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나갈 것이다.

1. 정부

기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던 IT관련 분야의 총 21개의 R&D사업을 8개로 단순화시키고 이를 정보통신기금과 일반회계로 <표 5>와 같이 재편성하였다.

<표 5> IT R&D 자원 재편성

| | |
|---------|-------------------------------------|
| 정진기금(4) | 전자정보다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
| 일반회계(4) | 로봇, 지식서비스·USN, 산업기술융합, 바이오·의료기기 |

향후 ① 전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Convergence IT) ②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산업(Problem Solver IT) ③ 고도화되는 IT산업(Avancing IT)의 3개 전략산업별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약 3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단순한 양적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IT융합 및 활용 촉진, IT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영역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민간 우위 분야는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IT융합·활용, 에너지의료, 부품, SW 등 미래유망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IT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정부는 다수의 법령에 산재한 IT산업진흥기능을 통합하고, IT제조업이 IT서비스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안전·인증 제도를 민간자율에 맡기거나 친기업적으로 전환하되 인증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은 국제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규서비스 제공과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등과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뉴IT전략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분야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고,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LED조명 설치 시범건물,

u-Healthcare 등 공공부문의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WiBro·DMB와 같이 '기기·서비스·SW'를 패키지형으로 전략국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KOTRA에 IT해외 마케팅사업을 일원화하고 IT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기업체의 IT사업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신시장 주도형 융복합 인력양성지원, 수요지향적 실무형 인력양성지원, 리더급 고급·전문 인력양성지원 등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IT융복합 인력 3천명 양성을 목표로 2012년까지 2,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만명(연간 5천명)의 IT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지주회사(신기술 창업전문회사)와 연구소별 TLO(Tech Licensing Office)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ESCORT¹⁾(ETRI SMEs Cooperation Team),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Total Solution²⁾사업과 같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창업·경영 지원을 위해 IT연구개발 기관, IT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IT 기술·창업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도 있다. 더불어, 출연연이나 전문생산연구소, IT특화팩 등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국내 기술의 전략적 국제표준화를 위해 양자 차원의 표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다자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표준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IT의 선도국가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보유한 국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외 침해와 해외 기업의 특허공격에 대한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업종별 공동대응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기업

기업의 가장 큰 역할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를 위해 5년간 총 11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기업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 이슈인 에너지고갈,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여 IT산업을 에너지 저소비형·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대학·연구소

대학과 연구소는 핵심원천기술개발과 광대역통합망과 같이 과소투자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에너지 효율 제고, IT-의료 등의 대형 융합형 R&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주체간의 협력을 위해 인력교류와 공동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융합연구에 필요한 다학제적인 인력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교수, 학생, 연구자들과 벤처캐피탈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소나 대학의 기술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V. 향후 전망

지금까지 뉴IT산업 전략의 내용과 투자방향, 주체별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뉴IT산업 전략이 과거 전략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몇 가지 든다면, 첫째, 목표 설정이 '양적' 확대보다 '질적' 고도화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둘째, 정책범위도 IT산업에서 전산업으로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점, 셋째, 성장전략 역시 모방 전략에서 시장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주체는 '정부·대기업 위주'에서 '민간주도, 정부지원'으로 전환하였고, 다섯째, R&D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수요창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IT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한다는 점 등이다.

지난 10월 가트너는 세계경기 침체로 내년 전세계 IT지출이 금년 8.9% 성장에서 5.8% 수준으로 성장이 하락할 것으


01_ ETRI의 ESCORT(ETRI SMEs Cooperation Team)를 통해 기술도우미 센터, 기술 Q-마크 도입·확대, 연구소기업 확대 등 추진

02_ KETI의 Total Solution 지원 : 기술개발-기술이전-투자유치-인력양성-정보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로 전망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금년도 IT산업 수출이 당초 전망보다 하락한 전년대비 8.3% 증가한 1,408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경제의 침체속에서 지금 우리경제는 물론 효자노릇을 한 IT산업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IT산업이 10년 전 외환위기에서 IT벤처, 정보화, 무선통신 등으로 한국 경제의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경제위기에서도 IT기반 융합, 그린IT 육성 등 IT 활용 확대와 신산업 출현 촉진을 통해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뉴 IT전략'은 세계속에서 'Wonderful IT Korea'의 위상을 이어감과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의 선진화와 어려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약 력 | |
|---|-------------------------|
|  | 1981년 행정고등고시(24회) |
| | 1997년 대통령비서실(경제비서실) |
| | 1998년 정보통신부 체신금융국 기획과장 |
| | 1999년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
| | 2002년 정보통신부 총무과장 |
| | 2003년 강원체신청장 |
| | 2004년 정보통신부 감사관 |
| | 2007년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담당장 |
| | 현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 | 남 공 민 |

